

2017. 10. 13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

I·SEOUL·U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디자인재단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국장	정소익	2096-0108 010-8578-0435
홍보 담당자	김나연	2096-0156 010-2035-1447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가을 향기 물씬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'인생샷' 남겨볼까?

- 전시 관람부터 인생샷까지... 마을 전체가 전시장인 '돈의문박물관마을'
- 「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」 (9.2~11.5) 돈의문박물관마을, DDP 등

- 이번 주말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, 청명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 도심 속 핫플레이스 '돈의문박물관마을'로 떠나보자. 서울 종로구 송월길 일대 경희궁과 강북삼성병원 사이에 조성된 '돈의문박물관마을'은 도심에서 보기 힘든 고즈넉한 한옥 풍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'인생샷'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.
- '돈의문박물관마을'은 조선시대 한옥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근대 건물 총 30여개 동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방식으로 조성한 역사문화마을이다.
 -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(이하 약칭 서울비엔날레)가 열리고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이번 주말 가을나들이를 200% 즐길 수 있는 팁을 공개한다.
- 첫째, 깊어가는 가을 밤 하늘과 함께 고즈넉한 한옥의 운치를 담고 싶다면 <공기 | 서울 온 에어>가 전시된 전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.

- ‘서울 온 에어’ 는 버스에 설치한 센서로 측정된 미세먼지를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는 전시. ‘미기후’ 정보를 증강현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.
- 해가 질 무렵 2층 난간에서 한옥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촬영하면 낭만 가득한 노을과 함께 아래에 한옥이 보이는 분위기 있는 가을 사진을 찍을 수 있다.

□ 둘째, 커플이라면 ‘그로우모어’에서 커플사진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보자.

- ‘그로우모어’는 정원이나 도심농원을 만들 수 있는 동그란 오두막 형태의 모듈식 가구이다. 분주한 도심에서 ‘잠시 멈춤’의 건축을 제안하며 사람들을 재충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전시 작품이다.
- 비엔날레 식당 앞 ‘그로우모어’ 안으로 들어가 다정한 커플샷을 찍어보자. 인생샷 명소로 인스타에 올라오는 여느 카페 부럽지 않은 커플 사진을 건질 수 있다.

□ 셋째, 인생샷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골목샷도 놓치지 말자. 양쪽으로 한옥이 늘어난 비엔날레 카페 뒤 사잇길은 쇼핑몰 모델처럼 전신샷을 찍기에 최적의 장소다.

- 오직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‘비엔날레 카페’에서는 물 부족 지역에서 최적화된 배수인차, 태양광으로 구운 사과빵 등을 맛볼 수 있다.
- 돈의문박물관마을 야외 마당에서는 오는 10월 22일까지 주말 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개관을 기념해 기타&보컬, 가야금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.

□ 서울비엔날레 담당자는 “돈의문박물관마을은 근현대에 형성된 골목과 한옥 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공간이다. 서울비엔날레와 함께 볼거리 가득한 이곳에서 친구, 가족, 연인 모두가 특별한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한편,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「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」 는 다음달 5일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.

□ 사진 (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 이미지)



① 낭만 있는 가을 하늘과 함께 고즈넉한 한옥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 포토스팟. 사진은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전 전시작품인 <공기 | 서울 온 에어>가 전시된 전시장 2층



② 알콩달콩한 커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로우모어



③ 쇼핑물 모델처럼 전신샷을 찍기에 최적의 장소인 비엔날레 카페 뒤 골목길

사진출처: 서울디자인재단